

20131225 새벽을 깨워 나와 만나자

작성일 : 2013. 8. 6(화) AM 04:30

작성자 : 이재은

(40일 말씀과 생명 구원의 기도 기간이 끝난 후
차원을 높이고 싶어서
새벽 2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

9일째 되는 날 깊이 기도하던 중
또렷하게 선생님의 혼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
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.
기도를 마친 후 강의자에 앉아서
새벽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
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
갑자기 성자께서 오셔서 받아쓰라고 하셔서
적은 말씀입니다.)

* 성자의 말씀 *

너는 적어라.
이 새벽 내가 왔다 간다.
내가 왔다 가도 아는 자 몇 없구나.
깨어서 나 맞는 자 몇 없다.
깨어 있어야 한다.
새벽에 내가 왔다 간다는 것을 알아라.
새벽에 나와 만나야
너희의 영이 변화를 이룬다.

새벽기도는 휴거의 과정에 있어
필수 과목이다.
다른 것 다 잘했어도
새벽에 기도로
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
누락되어 휴거되지 않는다.

새벽기도는
너희의 영이 나와 만나는
가장 깊은 시간이며
너의 병들어 있는 뇌가
치료받는 회복의 시간이다.

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다.

진수성찬

다 차려진 밥을 먹는다고 하자.

밥을 먹으려고 할 때

수저가 있어야 밥을 먹는데

수저가 없으면

그 진수성찬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느냐.

여기서 수저는 새벽기도를 말한다.

새벽기도를 하지 않으면

너에게 이루어질 모든 것이

그림의 떡이 된다.

그 말은 곧 새벽기도는

너에게 모든 것이 실체가 되는 시간으로

깨어 있는 시간 중

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시간이며

모든 세계를 실체로 이룰 수 있는

값진 시간이다.

새벽에 나와 만나야 된다.

그래야 이 휴거 때 나를 맞는다.

깨어 있어라.

줄지 말아라.

새벽기도는

너희가 나에게 보일 수 있는

정성의 시간이며

사랑의 시간이다.

피곤하다 하여

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자

어찌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.

피곤하여도 잠을 이기고

나를 만나러 오는 자가

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느냐.

지금은 진정 그 행함으로

내가 너희의 사랑을 측량하며 분별한다.

너의 사랑은

행함으로 나아오는 진실한 사랑이더냐.
아직도 입술로만 맴도는
관념의 사랑이더냐.

난 이제 더 이상
관념과 형식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.
그 사랑 주어도 받지 않는다.

내가 얼마나
‘행함으로’ 몸부림치느냐는
단순한 몸부림이 아니다.
그 몸부림은
나와 더 사랑하고자
간절히 원하는 진실한 고백이 된다.

(새벽예배 찬양이 시작되어
펜을 놓고 계시를 받던 공책을 덮었는데
성자께서 왜 말씀을 받다가 허락 없이 묻지 않고
펜을 놓느냐고 말씀하셔서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.
성자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)

나에게 진실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
‘행함’뿐이다.
지금은 ‘실체 시대’ ‘행함의 시대’다.
너희의 행함만이 나에게 보일 수 있는
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을
진정 알기 바란다.

꼭 새벽에 나와 대화하며 나와 만나야만
휴거될 수 있는 것을
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라.

휴거를 원하지만
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.
새벽에 나와 사랑으로 교감되지 않으면
절대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.

반드시 너희의 행실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며
새벽에 역사하는 나 성자임을 진정 알고
새벽을 깨우고 졸지 말고
마음단장, 몸단장 하여

나를 맞는 '진실한 신부'가 되어라.

지금 이 기회의 때인 것 알지?
너희가 나에게 보일 수 있는
모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이다.
미련 없이 몸부림치며 행하는
너희가 되길 바란다.

사랑한다.
새벽에 우리 사랑하자.
대화하자.
만나자.

새벽에 조는 자 잠자는 자
내 사랑에 줄고 잠자는 자다.

진정 깨닫길 바라며
나 성자가 말하였다.

(성자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.
성자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실 줄 몰랐는데
언제 어느 때에 성자께서 말씀해 주실지 제가 알 수 없으니
매일 성자께 주파수 맞추고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.)

그래.
항상 깨어 있는
사랑스런 신부가 되어라.